

2016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6.12.16(금) 12:00~13:3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심층성, 적절성 제고해야

- 탄핵가결 이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국정수습을 위한 정부의 대응도 비중 있게 보도한 점은 바람직해 보임. 그러나 탄핵의 영향과 대응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진단이 부족했음(박동민 위원)
-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11.29일) 보도시 시민들 관심이 많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적절치 않았음.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큰 담화였는데 화면에는 시민들이 몇 명 없는 곳을 비추어 국민의 관심이 적은 것처럼 보였음(박동민 위원)

▲ 화면구성, 자막방송 등 개선필요

- '출발 640' 코너 마지막 부분에 '미디어 브리핑'은 타방송사의 유사한 프로그램과 달리 언론뉴스 뿐 아니라 방송뉴스까지 포함한 것이 돋보임. 다만, 방송뉴스의 경우, 간단한 제목만을 자막으로 띄우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2-3줄 세부내용을 함께 적어주면 더 좋은 듯하며, 배경 역시 관련되는 배경으로 바꾸어 주면 더욱 시각적으로 보기에 좋을 것으로 사료됨(김상선 위원)
- 속보용으로 쓰이는 빨간 자막이 너무 남용되면서 속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됨. 정말 속보가 아니면 되도록 빨간 자막을 지양하는 게 어떨지 생각됨(주철환 위원)
- 스크롤은 화면 아래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그런데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기사내용들이 혼재돼 있어 불편함. 타사는 기사별로 분류가 돼있던데 그런 방안도 좋아 보임(주철환 위원)
- 12.3일 저녁 7시 뉴스부터 집회시간을 '집회시간'으로 잘못 적은 오타가 여러 번 반복돼 방송됐음(박동민 위원)

▲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의견

-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결국 과학기술에 달려 있음을 감안하여, 과학기술 관련뉴스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 오늘의 스포츠, 오늘의 일기예보처럼, 오늘의 과학기술 뉴스 또는 금주의 과학기술 뉴스 코너의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 주

시면 좋겠음(김상선 위원)

- 트렌드 지금 여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뉴스채널이긴 하지만 내용이 재미있음. 뉴스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 제작을 고려해봤으면 함. 예를 들어 모종편 박종진의 라이브쇼처럼 재능 있는 기자들을 앞세워 토크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음(주철환 위원)
- 타사를 보면 제보영상을 적극 활용하는게 눈에 띄는데 연합뉴스TV에서도 제보 영상들을 모아서 짧은 코너를 만들거나 해서 시청자 참여를 높이면 연합뉴스TV에 대한 시청자들의 충성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판단(주철환 위원)
- 뉴스의 대부분을 대담이 차지하는데 대담의 형식이 모든 종편과 보도채널들이 다 엇비슷함. 패널 1~2명이 출연해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대담이 진행되면서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변화를 고민하면 좋을 듯. 예를 들어 CNN 같은 경우에는 진행자에 패널이 나란히 앉아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듯 뉴스를 진행하는데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는 것도 시청자를 유인하는 좋은 방법이 될 듯함(주철환 위원)
- 청문회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타방송과 달리 청문회를 최대한 많이 방송해 줘 시청자 편의를 배려한 점이 돋보였음. 연합뉴스TV의 방대하고 실시간 뉴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뉴스 꼭지수가 적고 반복뉴스가 많은데 더 늘렸으면 함(박동민 위원)

▲ 기자의 활용과 리포트시 유의사항

- 여전히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의 연차가 낮고 또 출연자들이 특정 패널들로 고정돼 있음. 보도국 내의 연륜 있는 기자들을 앵커나 패널로 적극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고려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주철환 위원)
- 현장 기자 연결시 기자들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경우가 보이는데 어색해 보임. 되도록 보이지 않도록 이어폰을 끼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면 좋을 듯(주철환 위원)

▲ 긍정적 평가 및 기타의견

- 최근 들어 앵커와 기자의 멘트가 생동감 있고 전달력이 좋아진 것을 느낌(박동민 위원)
- 연합뉴스TV의 특성상 정부 여당에 대한 적극적 비판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의 보도경향은 진보적인 경향이 늘어 국민적 정서에 가까이 가있다고 생각함. 자율적 보도라는 느낌은 좋음. 더불어 치우치지 않는 보도의 지속성의 견지는 혼란한 정국의 미디어의 다리와 등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길 바람(박정숙 위원)
- 뉴스를 보면 CG에 따라 완성도에 차이가 있어 보임. 뉴스의 양이 많아 CG제작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CG의 질을 높이면 뉴스 전체가 세련돼

보일 것으로 생각됨(주철환 위원)

- . (끝)